

군산, 돌발해충 협업 방제 추진



군산, 돌발해충 협업 방제 추진

군산시가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협업방제를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해마다 과수와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등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업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돌발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기술보급과, 산림녹지과, 과수농가가 참여한 돌발해충방제 협의회를 진행하고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돌발해충 공동방제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10월 8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해 이 기간동안 농지와 산림지를 집중방제할 계획이다.

군산시에서는 올해 과수돌발해충과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자두곰보병 방제에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3,320만 원을 투입해 120농가 60.2ha에 방제약제와 친환경 자재를 무상지원한 바 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돌발해충 방제약제가 인근 다른 농작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근처에 있는 경우 약제 살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허정찬 기자 · cldn27@daum.net

오늘부터 새달 16일까지 실시 과수·산림 피해 최소화 총력 “해당작물 등록 약제 살포 중요”

군산시가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협업 방제를 추진한다.

군산시는 해마다 과수와 산림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등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 공동 협업 방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시는 돌발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기술보급과와 산림녹지과, 과수농가가 참여한 돌발해충 방제 협의회를 구성,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방제를 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특히 내달 8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해 이 기간 농지와 산림지를 집중 방제하기로 하고 해당 지역에 주의를 부탁하는 사전 홍보를 하기로 했다.

이들 돌발해충은 산림에 서식하다가 인접

과수원에 날아들어 어린줄기에 산란하거나 과실과 줄기의 즙액을 먹어 과수의 생장을 저해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해 품질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고 있다.

군산시는 “농경지에서 약을 치면 산림으로 숨어들었다가 약효 지속 기간 이후 다시 농경지에 날아들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 기간 농경지와 산림지를 철저히 동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 할 것”과 “돌발해충 방제약제가 인근 다른 농작물에 흩날리지 않도록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근처에 있는 경우 약제 살포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시는 올해 과수 돌발해충과 검역 병해충인 과수 화상 병, 자두 곰보 병 방제에 국 도비를 포함한 예산 3,320만 원을 들여 120 농가 60.2ha에 방제약제와 친환경 자재를 무 상 지원했다. /군산=임태영기자 · kuku79@

전라매일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008면 지역

돌발해충 성충기 협업방제 추진

군산시, 산림 집중방제 실시

군산시가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협업방제를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해마다 과수와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등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업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돌발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기술보급과, 산림녹지과, 과수농가가 참여한 돌발해충 방제 협의회를 진행하고 28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10월 8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해 이 기간동안 농지와 산림지를 집중 방제할 계획이다.

이들 돌발해충은 산림에 서식하다가 인접 과수원에 날아들어 어린 줄기에 산란을 하거나 과실과 줄기의 즙액을 흡즙해 과수의 생장을 저해하고 그을음병을 유발시켜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피

해를 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농경지에서 약을 치면 산림으로 숨어들었다가 약효 지속 기간 이후 다시 농경지에 날아들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기간 농경지와 산림지를 철저히 동시방제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군산시에서는 올해 과수돌발해충과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자두곰보병 방제에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3,320만 원을 투입하여 120농가 60.2ha에 방제약제와 친환경 자재를 무상 지원한 바 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 할 것”과 “돌발해충 방제약제가 인근 다른 농작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근처에 있는 경우 약제 살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수현 기자

군산시 '돌발해충 제로화' 민·관 협업방제 추진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공동방제 기간 지정

군산시가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협업방제를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해마다 과수와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등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업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돌발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기술보급과, 산림녹지과, 과수농가가 참여한 돌발해충 방제 협의회를 진행하고 오늘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를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오는 10월 8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해 이 기간동안 농지와 산림지를 집중방제할 계획이다.

이들 돌발해충은 산림에 서식하다가 인접 과수원에 날아들어 어린 줄기에 산란을 하거나 과실과 줄기의 즙액을 흡즙해 과수의 생장을 저해하고 그을음병을 유발시켜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농경지에서 약을 치면 산림으로 숨어들었다가 약효 지속 기간 이후 다시 농경지에 날아들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기간 농경지와 산림지를 철저하게 동시방제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군산시에서는 올해 과수돌발해충과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자두곰보병 방제에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3천 320만 원을 투입해 120농가 60.2ha에 방제약제와 친환경 자재를 무상 지원한 바 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줄 것"과 "돌발해충 방제약제가 인근 다른 농작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근처에 있는 경우 약제 살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산=지승길 기자

군산시, 농지·산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군산시가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협업방제를 추진한다.

이는 해마다 과수와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등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함이다.

시는 기술보급과·산림녹지과·과수농가가 참여한 돌발해충 방제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를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내달 8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해 이 기간 동안 농지와 산림지를 집중방제할 계획이다.

돌발해충은 산림에 서식하다가 인접 과수원에 날아들어 어린 줄기에 산란 또는 과실과 줄기의 즙액을 흡즙해 과수의 생장을 저해하고 그을음병을 유발시켜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고 있다.

김미정 군산시 기술보급과장은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줄 것"과 "돌발해충 방제약제가 인근 다른 농작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근처에 있는 경우 약제 살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전민일보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008면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산시, 오늘부터 수탁기관 공모

군산시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내년부터 5년간 센터를 운영할 법인으로 28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서류접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454-3252)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정책에 의해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이주민 한국어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등이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군산 다문화가족센터 수탁기관 모집

새달 12일~16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탁기관 공개 모집에 나섰다.

군산시는 가족지원 시설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센터의 운영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법인을 선정하는 이번 공개 모집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서류접수는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며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배치하는 시설장은 상근해야 한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송동에 있으며 여성가족부 정책에 의해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이주민 한국어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등이 있다.

공개 모집 관련 서류는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5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